

영산강·섬진강 친환경농업 덕쳤다

경지면적 36%인 4만여ha에 도입
농약·화학비료 줄여 수질개선 효과

영산강과 섬진강 수계에서 이뤄지는 친환경농업이 이들 강의 수질개선에 큰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전남도에 따르면 영산강·섬진강 수계인 나주시 등 10개 시·군에서 경지면적의 36%에 해당하는 4만8천여ha가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획득했으며 시·군별로는 구례가 경지면적의 63%, 곡성 52%, 광양 41% 등이다.

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산강 수계지역 7개 시·군에서는 총 경지면적 11만3천여ha 중 33%에 이르는 3만7천여ha가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획득했다. 시·군별로는 학령이 경지면적의 51%가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았으며, 담양(46%), 무안(33%), 영암(32%), 화순(28%), 장성(26%), 나주(25%)가 뒤를 이었다. 특히 영산강 시원지인 담양 용면

의 경우 경지면적 313ha 중 113ha가 인증을 획득했으며, 이 가운데 무농약 농업이 46%, 저농약 농업이 54%에 달한다.

섬진강 수계도 3개 시·군의 총 경지면적 2만1천ha 중 52%에 달하는 1만1천여ha가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획득했으며 시·군별로는 구례가 경지면적의 63%, 곡성 52%, 광양 41% 등이다.

영산강과 섬진강에서 이처럼 친환경 농업이 확대되면서 화학비료와 농약 사용량이 많이 감소, 수질오염원 유입저감과 수질 개선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실제로 이들 지역은 친환경농업이 이뤄지면서 일반 관행농업에 비해 화학비료와 유기합성농약의 사용량이 각각 연간 8천900t, 13t씩 줄어들었으며 곡성 고달지역은 생물학적산소 요구량(BOD)이 2004년 1.9ppm에서 2007년 1.3ppm으로 크게 낮아졌다. 임영주 전남도 농림식품국장은 “친환경농업이 흙과 물, 자연생태계를 회복하는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며 “친환경농업을 영산강 및 섯강 살리기 사업과 함께 추진해 앞으로도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충청기자 redplane@kwangju.co.kr



‘6.15km 걷기 대회’

6·15 공동위원회 광주·전남본부는 6·15 남북공동선언 9돌을 이틀 앞둔 지난 13일 광주시 동구 광주공원 앞 천연 산책로에서 시민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6·15km 걷기 대회’를 열어 공동선언의 의미를 되새겼다.

/위치당기자 jrw@kwangju.co.kr

‘한상률 비판’ 세무서 직원 파면

나주세무서 김동일씨 “법적 대응 불사” 반발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 대한 비판 글을 내부 통신망에 올린 국세청 직원에 대해 파면이 결정됐다.

광주지방국세청은 “지난 12일 징계 위원회를 열고 내부 인트라넷에 한상률 전 청장에 대한 비판 글을 올린 나주세무서 직원 김동일(47·6급)씨에 대해 파면을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광주지방국세청은 김씨가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행동강령의 ‘공무원 품위유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파면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이 소문으로 떠도는 허위 사실을 내부 통신망을 통해 유포한 것은 잘못이며 형법상으로도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는 게 국세청의 입장이다. 광주지방국세청은 이날 징계에 앞서 지난 8일자로 김씨를 직위해제 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행정안전부의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는 물론 소송 제기 등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김씨는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려 국민적인 의혹을 밝혀달라고 요구한 것이 평생 직장을 뺏을 정도니”며 “한 전 청장의 잘못을 비판한 글을 올린 행위가 품위유지를 위반하였다는 억지 주장은 손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처사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또 “국세청이 국민적인 의혹을 해소하고 잘못이 있다면 책임지는 자세를 보임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는다는 점을 강조했을 뿐이다”며 소청심사위원회 제소와 행정 소송 등 법적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씨는 지난달 28일 국세청 내부 게시판에 ‘나는 지난 여름에 국세청이 한 일을 알고 있다’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한상을 전 청장의 책임이 있다며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 이유 등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세무서 직원 파면 논란

정치권 확산 조짐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 대한 비판 글을 내부 통신망에 올린 국세청 직원에 대해 파면이 결정됐다.

한편 김동일은 “나는 지난 여름에 국세청이 한 일을 알고 있다”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한상을 전 청장의 책임이 있다며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 이유 등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통해 “내부 비판을 자성의 계기로 삼기보다는 파면하는 것은 독재정부에 서나 있을 일”이라며 “6월 임시국회에서 파면 경위 등을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세청 출신의 이용섭 민주당 의원(광주 광산을)도 “국세청장이 있었더라면(파면 등) 외압을 막았을 것”이라며 “국세청장의 장기 공석도 이번 파문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쌀 직불금 부당 수령 ‘솜방망이’ 징계

행안부 공무원 징계 수위 한단계 낮추라 지시

전남도가 쌀 소득 보전 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공무원들에 대해 불문경고 및 견책 등 경징계 결정을 내려 ‘솜방망이’ 징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직불금 부당 수령 공무원에 대한 징계 입장을 밝힌 행정안전부

부가 뒤늦게 징계 수위를 한 단계씩 낮추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어 2005~2007년 쌀 소득 보전 직불금을 부정수령한 것으로 확인된 공무원 15명(도 본청 소속

공무원과 시·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 견책과 불문경고, 불문 등의 경징계 결정을 내렸다.

징계 유형별로는 ▲견책 4명 ▲불문경고 10명 ▲불문 1명 등이며, 직급별로는 4급 서기관이 1명, 5급 사무관 7명, 지도관 1명, 6급 이하 6명 등이다.

한편, 징계대상 공무원은 광주시가 9명, 전남도와 도내 각 자치단체는 84명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 초등생, 서울로 영어캠프 간다

양지역 교류협력 … 200여명 무료로

광주 초등학생들이 서울시에 서 운영하는 송파구 풍납동 영어 캠프에 무료로 참여하고, 양지역 문화예술단체들은 협연과 상호 전시회를 여는 등 양지역 교류가 크게 늘어난다.

박광태 광주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는 17일 광주시청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류협정을 체결한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농수산물유통공사 등 4개 기관

나주 혁신도시 이전 추가 확정

나주에 조성중인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이라 나주혁신도시)에 농수산물유통공사 등 4개 기관의 지방이전 계획이 승인되면서 나주혁신도시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4일 전남도 혁신도시건설지원단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최근 지역발전위원회(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농수산물유통공사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관리공단 ▲우정사업정보센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4개 기관의 비롯한 13개 기관의 나주혁신도시 이전 계획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에 이전 예정인 17개 기관 중 13개 기관의 지방이전 계획이 확정됐다.

농수산물유통공사 등 이번에 지방이전을 승인받은 4개 기관은 앞으로 3개월 이내에 부동산 처리계획을 수립해 국토해양부에 제출하고, 2012년까지 이전을 완료해야 한다.

특히 농수산물유통공사는 혁신도시 부지를 조성 중인 한국토지공사와 지난 3월 말 부지매입 계약을 체결해 조만간 본 계약이 맺어질 예정이어서 전국 10개 혁신도시 가운데 최초로 이전하는 기관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우정사업정보센터도 7월 중에 청사설계 밤나무에 들어가며,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관리공단도 부지매입비 61억원이 확보돼 혁신도시의 이전

이 빨라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아직 이전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지적재산권 보호위원회, 컴퓨터통신보호위원회, 콘텐츠 진흥원, 정보제공진흥원 등 4개 기관은 정부의 선진화 계획에 따라 통·폐·합 절차가 마무리되고 나서 입지가 결정되면 이전계획이 세워질 것으로 보인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이명박 대통령 訪美

이명박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 여사는 15일 오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미 워싱턴을 방문하기 위해 출국한다.

〈관련기사 5면〉

이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16일 워싱턴에서 한미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며, 이번 회담은 지난 4월 2일 영국 런던 G20 금융정상회의 때에 이어 두번째다.

또 방미 마지막날인 17일에는 조지 워싱턴대에서 명예박사학위를 받고 연설에 이어 미국내 한반도 전문가들과의 간담회를 가진 뒤 18일 귀국한다.

특히 직불금 부당 수령 공무원에 대한 징계 입장을 밝힌 행정안전부

부가 뒤늦게 징계 수위를 한 단계씩 낮추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어 2005~2007년 쌀 소득 보전 직불금을 부정수령한 것으로 확인된 공무원 15명(도 본청 소속

무등빌딩임대



- 최상의 업무지역,
- 금융지역, 상업지역
- 지하철역세권
- 대형주차장
- 중앙공급식 냉·난방
- 탁월한 무등산 조망권
- 면적 330평 / 총 (분할임대 가능)
- 용도: 사무실, 판매시설

임대문의 062)412-6234

목장용지급매

위치 :

전남 곡성군 석곡면 방송리 367, 367-6, 367-9 등 10개 번지

목장용지 :

12343㎡(3734평)

건평 :

2350㎡(약 700평),
축사(한우 약 50두 이상
사육가능), 견사주택(104㎡),
염소막사, 버섯재배사 등

매도가 :

1억 7천만원
(은행대출 1억 포함)

연락처

☎ 010-3617-8810

6월 5일 OPEN


**즉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고품격 메뉴, 건강한 맛, 품격있는 서비스

아이부터 어른까지 3대가 만족하는 즉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고객님의 소중한 추억과 맛있는 행복을 약속합니다.

내장객 선착순 1,000분께 6월 12일(금) 기아타이거즈 VS 한화이글스 광주홈경기 입장권을 드립니다.	돌잔치, 세미나, 피로연 각종 모임 예약 접수중 (470석 완비)
LUNCH 11:30~15:00 20,000원 12,000원 8,000원	DINNER 16:00~22:30 25,000원 15,000원 10,000원
LUNCH 11:30~15:00 25,000원 15,000원 10,000원	DINNER 16:00~22:30 30,000원 18,000원 12,000원

★ 금요일 DINNER는 주말요금으로 적용됩니다. ★ 어린이 요금은 의료보험증 등을 지참하시어 할인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NAVER Dalm 아이엘리시아 접속

예약문의. 062) 671-1199

광주 서구 팔천동 49-1 (유·스퀘어 광주종합버스터미널 2F)

